

## ■ 위프레도 램, 아메리카의 화가

심재중

프랑스 파리에 있는 다페 박물관은 주로 아프리카 문화의 디아스포라 현상과 관련된 전시를 기획하는 박물관이다. 그래서 다페 박물관에서 전시되는 예술품들은 카리브 지역과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북미의 흑인 문화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 박물관에서 2002년에 ‘혼혈 화가, 램’이라는 제목의 전시회가 열렸다. 쿠바 출신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화가 위프레도 램(Wifredo Lam, 1902~1982)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2002년은 램의 사망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다.

물론 램은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화가 중의 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초현실주의 화가이기 이전에 그는 아메리카의 화가였고 카리브의 화가였으며 쿠바의 화가였다. 예컨대 쿠바의 대표적인 작가 알레호 카르펜티에르는 “오직 아메리카의 화가, 쿠바인 위프레도 램만이 자유분방한 자연의 창조를 화폭에 옮길 수 있었다”라고 썼다. 그런데 카르펜티에르는 어떤 점에서 램을 ‘아메리카의 화가’라고 말했던 것일까. 역설적이지만 램이 전형적인 ‘혼혈 화가’라는 점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램이 이질적인 문화에 속하는 다양한 요소들 사이의 혼혈과 공생을 화폭에 담아냈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아메리카, 특히 카리브 지역의 문화는 혼종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종적인 측면, 즉 혈통에 있어서도 위프레도 램은 전형적인 혼혈인이었다. 쿠바에 이민 온 중국계 아버지와 백인과 흑인 사이의 혼혈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그야말로



위프레도 램, 〈정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의 피를 고루 물려받은 셈이다. 사실 카리브 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이주민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더 이상 아프리카인도 유럽인도 아시아인도 아니다. 그들은 아메리카인들이고 카리브 해 인들이며 개별 국가의 국민들이다. 그들의 선조들은 각자 상이한 동기와 목



위프레도 램

적을 가지고 카리브 해에 정착했지만, 세월과 더불어 카리브 해 지역 특유의 혼종적이고 복합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 1. 카리브의 아시아인 후예들

카리브 해에서 가장 큰 섬나라인 쿠바는 인구가 1,200만이다. 그 중 51%가 메스티소, 37%가 백인이고, 11%가 흑인이다. 중국계를 비롯한 1%의 아시아계 인구 속에는 700여명 정도의 한인 후손들도 포함되어 있다. 한인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지구 정반대편의 그 섬나라까지 가게 되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다. 1905년에 1,035명의 한인이 에네켄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계약노동자의

신분으로 멕시코에 이주하였고, 그 중 이삼 백 명이 1920년을 전후하여 일자리를 찾아 다시 쿠바로 옮겨갔다. 계약노동자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의 처지는 노예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한 사정은 1905년에 중국계 신문 《문홍일보》에 실린 기사가 잘 보여준다. “이 곳 토인이 지구상 5~6등의 노예라면 한인은 그 밑의 7등 노예가 되어 영원히 우마와 같다. 농장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릎을 꿇리고 구타를 당하여 살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낭자하니 차마 못 볼 정경에 통탄통탄이라 하였더라.”

중국인들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이 카리브 해 지역에 밭을 들여놓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의 일이다. 쿠바의 경우에도 1845년에 흑인 노예무역이 금지되면서,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시아로부터 계약 노동자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에 중국에서 쿠바까지 가는 데에는 배로 3달에서 5달 정도가 소요되었다. 1847년에 최초로 스페인 선적의 오쿠엔도 호에 몸을 싣고 쿠바로 떠난 중국인 계약 노동자들은 출발 당시에는 300명이었는데 206명만이 살아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후 약 30년간에 걸쳐 10만 명의 중국인들이 쿠바로 이주하였고, 1940년대에는 3만에서 4만 정도의 중국계가 수도 아바나에 거주하였다. 농장에서의 계약 기간이 끝나자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그들은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통하여 가장 번성한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59년에 카스트로 혁명이 일어나고 뒤이어 모든 기업이 국유화되면서 대부분의 중국계들은 다시 뉴욕과 마이애미로 옮겨갔다. 그래서 뉴욕과 마이애미에는 쿠바계 중국인들이 경영하는 식당들이 많다.

뉴욕과 캐나다의 토론토 지역에 인도계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것도 그와 비슷한 이유 때문이다. 19세기 중반부터 약 60만 명의

인도인들이 계약 노동자의 신분으로 카리브 해 지역에 이주했는데, 특히 트리니다드와 영국령 가이아나에는 각각 15만 명과 24만 명의 중국인들이 이주하였다. 오늘날 트리니다드의 인구 구성에서 인도계는 40%로 흑인과 비슷하고, 가이아나에서는 51%로 흑인보다 많다. 결국 흑인과 인도계 사이의 경쟁관계와 갈등, 상호 인종차별의 여파로 70년대부터 인도계의 북아메리카 이주가 시작되었고, 그 중에서도 캐나다의 토론토 지역에 10만~15만 정도의 인도계 카리브 인들이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위프레도 램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카리브 지역의 문화 자체가 이주 문화이고 카리브인들 자체가 이주민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카리브 지역에서는 인종이나 민족을 지칭하는 단어들의 의미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우리에게 ‘흑인’은 무엇보다도 까만 피부색을 연상시키는 단어이다. 그렇지만 카리브 해 지역에서 ‘흑인’은 까만 피부, 곱슬머리, 뭉툭한 코, 두툼한 입술 따위의 신체적인 특징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계급적인 지위나 경제 능력 등을 내포하는 ‘사회·문화적’ 지칭에 가깝다.

## 2. 인종과 민족주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뒤의 라틴아메리카는 19세기 내내 ‘크리오요 국가’라는 문화정체성을 추구하였다. 신생국의 국부는 독립 운동가들이었고, 고대 원주민 문명이나 궁벽한 시골에 존재하는 원주민들은 신생국과 관계가 없는 타자들로 여겼다. 이처럼 독립 국가의 지배엘리트로 등장한 크리오요들은 1880년에서 1930년까지 1천 2백만 명에 달하는 유럽 이민을 받아들이는데, 그 주

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국민의 백인화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브라질의 경우, 19세기말 실증주의를 받아들인 지식인들은 물라토와 유색인종은 열등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백인과의 혼혈을 통해서 이들을 백인화하고 인종을 개량하겠다는 의지로 이민법을 추진하였다. 아르헨티나도 스페인어, 스페인 문화, 가톨릭, 가부장제, 질서를 핵심 축으로 삼는 크리오요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엽까지 3백만 명의 유럽 이민을 받아들였다.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더불어 카리브 해 연안국인 베네수엘라 또한 백인화를 위해서 유럽 이민을 받아들이고 흑인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였다.

이에 비해 흑인노예의 반란으로 세워진 아이티는 얼핏 보기에 는 예외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유사한 인종차별 구도에 의지하고 있다. 18세기에 이르러 생도맹그(Saint Domingue 현재의 아이티)의 물라토가 크게 증가하자 식민본국 프랑스는 ‘흑인법’을 제정하여 물라토에게도 백인과 같은 신분상의 자유와 재산권을 허용하였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프랑스에 유학하여 고등교육을 받았고 전반적으로 프랑스의 문화와 관습에 깊이 동화되어 있었다. 프랑스어를 구사하고 가톨릭을 믿는다는 점에서 크레올어를 구사하고 보두교를 믿는 ‘신 해방노예’와는 구별되는 계층이었다. 그런데 1804년 1월 1일 아이티의 독립을 쟁취한 군대는 데살린이 이끄는 흑인노예 세력과 페티용, 부아예 같은 물라토 출신의 장군들이 이끄는 연합군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탁월한 지도력으로 독립 운동을 추진하고 노예를 해방시킨 투생 루베르튀르는 혈통으로 따지면 흑인이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라토라고 할 수 있는 해방노예 출신이다. 투생 루베르튀르는 프랑스어는 물론이고 라틴어로 기도를 올리는 독실한 가

돌릭 신자로서 보두교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1806년 초대 황제 데살린을 무너뜨리고 아이티 대통령에 취임한 페티옹은 혈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더라도 명실상부한 몰라토로서, 독립 초기 존재하던 흑인노예와 몰라토 사이의 권력투쟁에서 몰라토 계급이 승리를 의미한다. 이처럼 아이티의 몰라토는 농촌에 거주하는 흑인과 분명하게 차별화되는 지배엘리트로서 라틴아메리카의 크리오요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인종 개념은 1910년 멕시코 혁명을 계기로 메스티소 민족주의가 공식적인 이데올로기로 등장하면서 문화적인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19세기 멕시코 사회에서의 메스티소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크리오요 국가라는 개념의 변화를 야기한 사회적 동인이다. 더구나 멕시코 혁명에 참여한 주축 세력은 원주민주의를 주장함으로써 원주민을 비폭력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멕시코 사회에 통합하려고 시도하였는데, 대표적인 논자가 혁명 이후 교육부 장관을 지내고 벽화운동을 공식적으로 후원한 호세 바스콘셀로스이다. 바스콘셀로스는 1925년 발간된 『우주 인종』의 서문에서 세계의 서로 다른 인종들은 차츰 혼혈하게 되어 결국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이를 ‘미래의 우주 인간’라고 지칭하고 있다. 또한 중남미 대륙에는 백인종, 홍인종, 흑인종, 황인종이 모두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종들이 혼혈된 제 5인종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현재 남아 있는 원주민들도 이러한 메스티소에 흡수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인종 개념의 변화에서 가장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카리브 해 국가는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이다. 아이티의 경우, 1957년 집권할 당시 뒤발리에는 이제 몰라토의 국가가 아니라 흑인 국가라고 선전하였는데, 이러한 흑인주의는 1928년부터 전개된 토착화운동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토착화 운동이란 1915년 미국이 독일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자국민 보호를 구실로 내세워 아이티를 점령한 이후 아이티 지식인들이 역사를 반성적으로 고찰하면서 태동한 아이티 민족주의 운동이다. 장 프리스-마르스를 비롯한 많은 지식인들이 앞 다투어 아이티의 국민문화를 분석하였는데, 이들은 서구 모방에만 열성적이고 아이티의 기층문화를 무시하는 지식인들을 비판하고 농촌사회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아이티에 존재하는 아프리카 연원의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착화운동은 기본적으로 아이티 국내에 제한된 것이지만, 이 영역을 넓히면 네그리튀드 운동과 일치하며 정권 차원으로 좁히면 바로 뒤발리에가 정략적으로 이용한 흑인주의가 된다.

이에 반하여 도미니카공화국은 스스로 백인국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인구 구성비는 혼혈인(메스티소와 물라토) 73%, 백인 16%, 흑인 11%이며, 아이티의 경우는 흑인이 95%를 차지하고 나머지 5%는 물라토와 백인이다. 대부분의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이 그렇듯이 두 나라 모두 흑인과 물라토의 국가라고 지칭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미니카공화국에서 6선의 대통령을 지낸 정치가이자 문인이고 문화이론가인 발라게르는 도미니카공화국이 아이티와는 달리 “원주민 멸종 이후 산토도밍고 섬은 스페인과 프랑스 출신의 유럽인들로 구성되었으며, 1795년 바젤 조약 이전에 식민지[도미니카공화국]는 황금과 원정의 모험에 이끌려 아메리카로 이주한 명문가 출신들로 구성되었다” 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도미니카공화국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흑인이나 물라토의 신분증의 인종란에는 ‘원주민’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이로써 농업노동자로 국경을 넘어온 아이티인들, 즉 ‘흑인’ 들과 차별화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 국민 가운데 ‘흑인’ 은 존재하지



않는다.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가톨릭을 신봉하며 스페인 문화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는 도미니카공화국은 이웃나라 아이티, 즉 흑인 국가임을 공식적으로 주장하며 아프리카 흑인노예의 문화를 상속한 아이티와 비교할 때 백인국가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침략과 대립의 갈등 관계를 보여온 양국은 이렇듯 민족주의에 호소하여 각각 상대국과 다른 국민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사용하는 흑인, 원주민, 백인, 물라토는 문화적으로 구성된 종족이라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비록 도미니카공화국이 생물학적 요인과 전혀 상관없는 문화적 요인만으로 자국민을 분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 신분증에 ‘원주민’ 또는 ‘백인’이라는 표시 자체가 인종차별적이며, 이러한 표시로 이웃 아이티에서 건너온 흑인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생물학적 인종 개념에 문화적인 개념으로서의 종족이 중첩되어 있는 것이다.

### 3. 계급과 인종

카리브 해 지역과 라틴아메리카의 인종과 종족 규정에 작용하고 있는 또 하나의 층위는 느슨한 의미로서의 계급이다. 여기서 말하는 계급이란 전통적인 의미와 차이가 있다. 말을 바꾸면, 생산관계 속에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결코 무관하지는 않으나 다른 한편으로 개개인이 사용하는 언어, 교육의 정도, 성, 가문과 같은 사회적 지위를 포함한다. 이를테면, 아이티에서 크레올어만을 사용하는 사람과 크레올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까지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의 차이는 지배엘리트와 대중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기도 하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다. 2003년 1월 7일 미국 예일 대학교의 애미 추아(Amy Chua) 교수는 《뉴욕타임즈》에 「특권층의 권력」이라는 글을 기고하였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2002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3일 천하 쿠데타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차베스 정권과 국영석유회사(PDVSA)를 비롯한 기업인들과의 갈등을 진단한 이 글에서 애미 추아는 갈등의 한 요소로 종족의 문제를 꼽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위기에는 종족적인 차원도 결부되어 있다. 차베스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인구의 8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 파르도(pardo)이다.<sup>2)</sup> 하지만 베네수엘라 경제는 소수의 백인족 만투아노(mantuano)가<sup>3)</sup> 계속 지배하여 왔다. 외국 투자자들이 높은 교육 수준에 영어를 구사하는 만투아노 계층의 사람들하고만 거래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차베스 대통령의 비토 세력은 인종차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차베스처럼 유색인종의 대통령을 권좌에서 축출하려고 시도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수많은 재미 베네수엘라인들은 즉각적인 반론을 제기하였는데, 주된 논지는 베네수엘라에 인종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파르도와 만투아노 같은 말은

2) 인디언이나 아프리카인이 조상인 갈색피부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서 계급적이고 인종적인 함의를 동시에 갖는다

3) ‘망토를 쓴 사람’이라는 뜻으로 유럽인의 생김새와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을 일컫는다.

“시몬 볼리바르는 만투아노이다” 같은 용례에서 보듯이 1850년대, 혹은 1860년대까지 사용되었을지는 몰라도 현재 베네수엘라에서는 거의 사어(死語)가 되다시피한 용어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19세기 중반부터 유럽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혼혈을 이룬 결과 베네수엘라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도 트로피를 차지할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를 갖게 되었으며, 국영석유회사의 기술관료들 가운데 메스티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반론도 있었다.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시각에서 볼 때 애미 추아의 논지는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계급과 인종 사이에 개재하고 있는 복잡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파르도와 만투아노라는 베네수엘라 특유의 인종차별적인 이분법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분명한 실수이다. 실제로 오늘날 베네수엘라에서 파르도라는 용어는 눈동자 색깔을 기술하는 용어이며, 만투아노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사어이다. 따라서 애미 추아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논거를 끌어오는 데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지역은 다르지만 마우리시오 솔라운 등이 카리브 해 연안에 위치한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 지방에서 다양한 생김새를 지닌 128명의 사진을 보여주며 앙케이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반인들 사이에서 기존의 인종 개념은 많이 퇴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인들은 경우에 따라서 ‘물라토’라는 인종적인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고, ‘밝은 피부’라는 인종적으로 중립적인 용례도 보여주었으며, “머리카락로 보면 흑인”이라고 말함으로써 단순히 외모를 기술하는 용어로만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작 앙케이트 대상이 되는 자신을 기술하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상류계층에 있는 사람들만이 스스로를 ‘백인’이라고 규정하였고,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사람도 자신을 ‘백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류층에서 자신이 ‘흑인’ 이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피부색이 까만 상류층은 자신을 가리켜 모레노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흑인이라는 인종적인 요소보다는 경제적 요인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흑인이라는 용어 또한 국가에 따라서 다른 용례를 보인다. 스테판에 따르면, ‘검은 연기 같은 흑인’ 라는 말은 콜롬비아에서 외모에 대한 기술로 사용되는 반면에 쿠바에서 사용하는 ‘교수 같은 흑인’ 은 말투나 옷차림에서 상류층의 흉내를 내면서 자신을 백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즉, 쿠바의 경우는 백인과 흑인 사이에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쿠바는 혁명 이후 대부분의 백인 과두지배세력이 쿠바를 떠났으며, 혁명 주체 세력 또한 인종에 대한 언급을 타부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백인, 흑인, 물라토 모두에게 교육과 보건 문제를 평등하게 적용함으로써 인종 차별을 극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처럼 쿠바는 인종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6년 카스트로가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인정했듯이, 당이나 정부의 고위층은 소수의 백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 변화가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인종적인 변화, 즉 진정한 의미의 사회 변화는 아직 성취해내지 못한 것이다.

카리브 해 지역에서 쿠바와 마찬가지로 인종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곳이 있다면 푸에르토리코를 들 수 있다. 푸에르토리코인의 뿌리는 세 인종, 즉 백인, 흑인, 원주민(타이노족)에 두고 있다고 말한다. 이 가운데 히바로는 푸에르토리코의 전역에 분포하는 혼혈인이자 농민으로서 고유한 푸에르토리코인이라고 추켜세운다. 흑인은 민속문화와 관련된 용어이고, 원주민은 과거의 역사와 관련된 용어로 사용한다. 그러나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식민지로

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다빌라가 지적하고 있듯이 푸에르토리코인들은 미국에서 수입된 윈스턴 담배를 피우고 버드와이저를 마시면서 자신들이 진정한 푸에르토리코인이며, 카리브해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는 차별화되는 세계화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푸에르토리코인은 경제적 의미의 남북관계에서 자신들이 북반구에 속한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다.

카리브해 지역은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종민주주의를 주장함으로써 공식 담론에서는 인종차별을 제거하였다고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미묘하게 작동하는 인종차별은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공식 담론으로서의 인종민주주의, 민족주의적 문화정체성 담론에서의 인종, 지배와 피지배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인종차별, 일반인들의 관념 속에서 인종은 각기 다른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으므로 카리브해의 인종문제는 역동적인 복잡성을 지닌 이 지역의 문화 양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이다.

---

심재중 -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강사

---